

좀처럼 가시지 않는 누스

July, 2016

양혜규

좀처럼 가시지 않는 누스 | July 6 - September 5 2016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는 한국 작가 양혜규의 개인전 “좀처럼 가시지 않는 누스”를 개최한다. 13m 높이의 퐁피두 센터 중앙 홀에 설치되는 전시제목과 동명의 작품은 초록빛과 연보라빛을 띤 두 가지 십자형 블라인드 200여 개가 지그재그로 쌓인 형태의 새로운 블라인드 설치 작품으로, 미술관 전면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과 블라인드 사이사이에 설치된 LED 조명을 받아 형태와 색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다양한 인상을 만들어 낸다. 지하층에서는 양혜규 작가 초기 작업의 중요한 감성적 단서가 되는 <비디오 삼부작>(2004-2006)과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서 처음으로 상영되었던 <쌍과 반쪽 - 이름 없는 이웃들과의 사건들>이 각각 영사된다. 두 영상은 독립적으로 재생되면서 서로 다른 길이의 영상과 음상 사이의 끊임없는 새로운 조합을 탄생시킨다. 전시와 함께 10여 년간의 양혜규 작가의 블라인드 설치 작품의 전개를 총망라한 동명의 도록을 퐁피두센터와 프랑스의 저명한 출판사 레프레스뒤렐 (Les Presses du Reel)이 공동으로 발간한다.